

일당백 팀워크,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다

축

구든 농구든 단체 운동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기도 아니고 명감독도 아니다. 명문팀을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팀워크이다. 각별한 팀워크로 모바일 콘텐츠 및 솔루션 분야에서 탁월한 기획력을 인정받고 있는 팀이 있다. 비즈니스 인프라 솔루션 전문 기업인 IT플러스에서 최강 팀워크를 자랑하는 모바일팀이 바로 그들이다.

모바일팀의 주된 업무는 **위치정보서비스와 생활정보서비스 같은 핸드폰 모바일 콘텐츠나 모바일 솔루션 개발**. 검증된 팀워크만큼이나 평소 사무실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다고 홍보팀 직원이 귀뜸 한다.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모여 있는 분위기가 유난히 생기발랄하다. 서상민 이사는 팀워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팀워크란 것이 다소 자유롭고 친한 관계에서 더 발휘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별명 같은 것을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팀워크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기획이란 부분을 예로 들자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포지셔닝 시키느냐란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IT플러스 모바일팀은 특히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8명이란 적은 인원으로 20개의 기획을 런칭한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비상한 팀워크를 발휘해 성공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팀워크는 바로 이렇게 잘 만든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내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실 분위기는 처음보다 더 생기발랄하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별명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들에게 서상민 이사가 한마디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팀원들의 대답. **톡톡 튀는 별명만큼이나 개성 넘치는 그들의 대화 속으로, 자! 빠져봅시다!**

먹은 만큼 일하재
많이 먹고 열심히! 그래그래~
서상민 (언제나 29살) 이사

전 원래 적게 먹는데요?
적게 먹고 많이 일해서
부은거라구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오종국 (오서방) 대리

먹는거?
무한리필 원해요!
단, 일은 무한리필 해주지
마세요. 농담이고...
일도 무한리필 해보죠 뭐.
지용기 (간큰남자) 대리

난 먹는 거 싫어.
난 적게 먹고 적게 일할거야.
투덜투덜~
이상윤 (투덜이스머프) 과장

엇저께부터 저도 다이어트해요.
임성식 (엇저께) 과장

저는 다이어트 하는데요.
입사 때랑 얼굴이 확 다르잖아요?
이력서 사진 저 맞다구요.
위장취업한 거 아니라고요.
홍수연 (위장취업) 사원

*이름엇 괄호안은 별명임.

아주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질라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배터져도 좋아~
남선희 (군기반장) 차장

아 그렇게 되는건가?
그럼 저도 다이어트에 동참시켜 주세요.
근데 이따라 영원히 집에서
다이어트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우주연 (우주인) 대리

“호

프род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증에서 시작합니다. 그 갈증을 풀기 위해 일부러 길이 아닌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험가이자 개척자죠.”

무선인터넷·모바일 플랫폼 솔루션 회사인 ‘지어소프트’에서 모바일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박재만 과장은 암전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오프로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용감한 드라이버가 되어 있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고나 할까? 그는 2002년 뉴코란도를 구입하면서 프리젬 동호회(NK)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매주 금요일 산을 찾아, 들을 찾아,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오프로드를 즐기고 있다.

“오프로드는 짜릿함과 스릴로 뽀푹 뭉친 멋진 레포츠입니다. 그러나 그 짜릿함과 스릴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람들은 협동심이 강합니다.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험난한 지형을 만났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차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동료들뿐이거든요.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디인들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보니 도전과 패기의 오프로더 박재만 씨와 벤처회사에서 개발업무를 하고 있는 박재만 과장은 똑같은 모습이다. 패기와 열정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오프로드 정신이 벤처기업의 그것과 똑같이 느껴진다.

박재만 과장은 요즘은 회사 업무가 바빠 정기모임에 참가하기 어렵다며 아쉬워한다. 그래서 잠시 시간이 날 때마다 차 부품들을 매만지고 관리한다. 엔진도 직접 열어보고 싶지만 아직은 그만한 내공이 아니란다.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도 빠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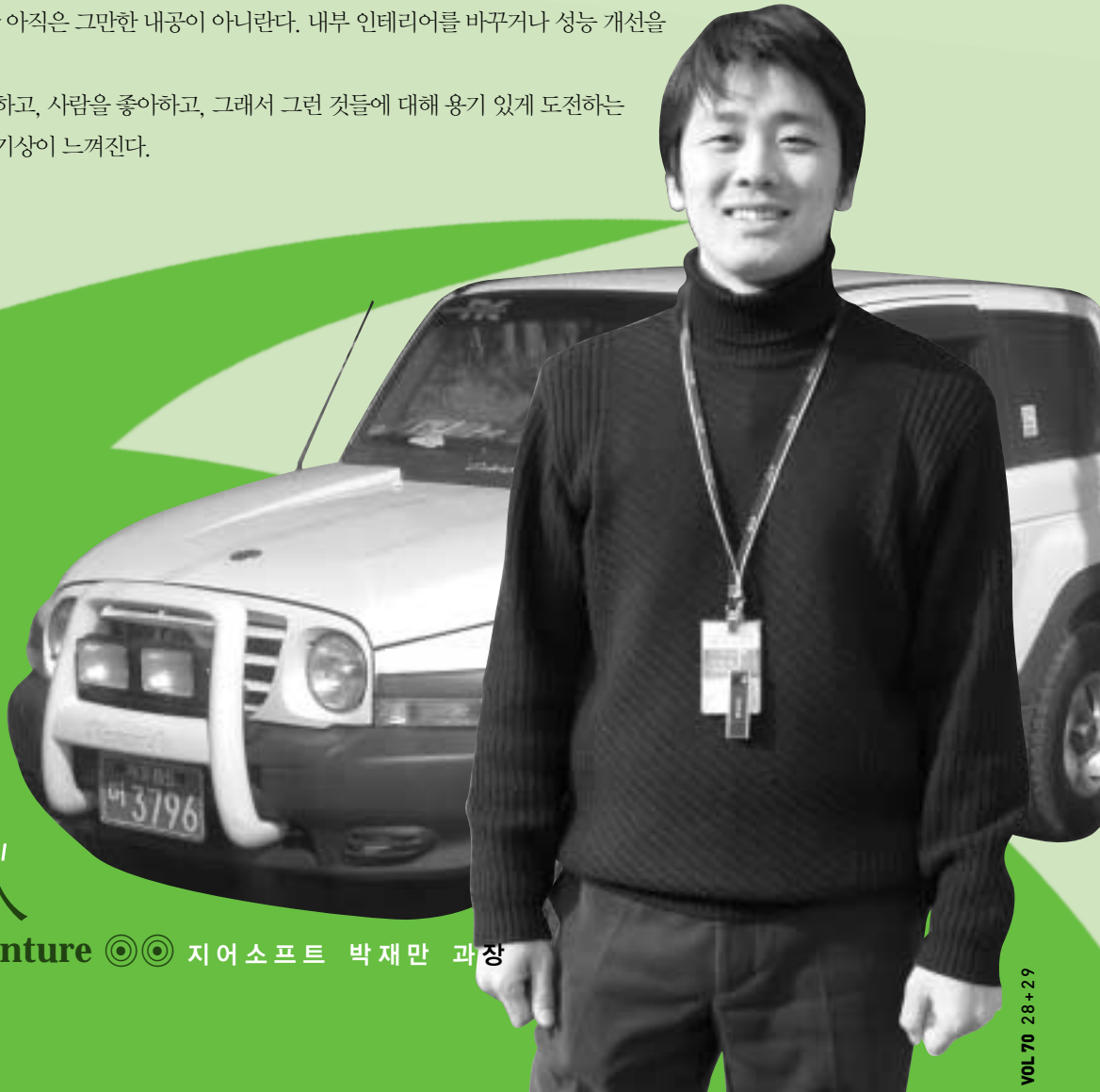
차를 사랑하고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취적인 벤처인의 기상이 느껴진다.

박재만 과장이 추천하는 오프로드 하기 좋은 곳 BEST 3

가야산(충남 서산시) ● 덕산 도립공원 내 덕산에서 온산으로 넘어가는 10km의 코스. 정상에 서면 서해대교의 장관이 보인다.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월사지 등이 가까이에 있어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기에 좋다.

유명산(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과 유명산 사이의 베너머 고개에서 유명산으로 오르는 코스. 패러글라이딩 장소로도 유명하다. 정상부근의 급경사는 위험하니 조심.

용추계곡(경기도 가평) ● 가평-승안리-용추계곡-정상-백둔리로 연결되는 코스. 깊은 계곡을 끼고 달릴 수 있다. 물이 깨끗하고 경치가 빼어나 인기가 높다.



Venture in,
벤처인

→ Funny Venture ◎◎ 지어소프트 박재만 과장

내가 밟는 그곳이 바로.. 새로운.. 세계